

05 2013년 No.02

은퇴설계를 위한

# 하나 행복가이드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금융회사의 대응





#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6325 - 3014

www.hanaif.re.kr







# **Contents**

이슈포커스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금융회사의 대용	01
노후 재무설계	해외 주식 중 이머징 주식 비중 축소 5월 국내 주식시장은 바닥에서 탈피하여 상승세로 전환할 전망	09
국내외 단신	2013년 美 근로자 은퇴 자신감 조사 2016년부터 60살 정년연장 시행 50대 중·후반 경제활동참가율 사상 최고치 경신	13
상품브리프	연금보험으로 3중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완성	17
하나뉴스	하나욘행, 「행복연금통장」 새롭게 출시 등	19
연금 통계		20



#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연구원 최 성 민 (sungmin.choi@hanafn.com)

"주택연금은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 내 실정상 은퇴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과 정부의 혜택제공으로 인해 신규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 연금 가입연령 및 수시인출금 한도를 확대하는 조 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에서 는 리스크로 인해 주택연금 시장 참여가 미흡한 실 정이며 미국 등의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 금융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 해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 우퇴대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

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 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 고 평생동안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현행 국내 주택연금 상품은 한국주택금 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역모기 지론의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을 가리킨다.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출시된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 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은퇴를 앞둔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부분은 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은퇴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 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말 기준 국내 전 체 가구의 가계자산은 실물자산 75.1%. 금융자산 24.9%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 산의 60% 수준에 불과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비중은 더 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 이 후 매년 신규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신규가입자가 5천명을 돌파 하는 등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도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주택연금의 가입독려를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참여 미흡

주택연금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 시 보장한 연금 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평생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은퇴 후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주 택담보대출금리보다 금리가 낮고 저당권 설정시 등록 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 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자비용의 경우 200만원 한 도로 연금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연금을 이용 하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상속받고 부부 모두 사망 시 또는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정산이 가능하 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항상 전 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주택연금 상품은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고령층에게 적절한 여유 생활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계약자의 사망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계약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까 지 장기간에 걸쳐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을 갚아내 는 자금의 원천이 상환시점의 주택가격이므로 돈을 빌

려주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금 융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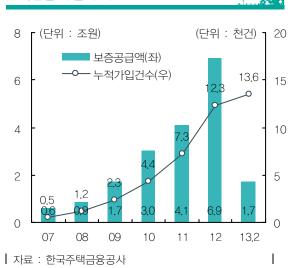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 의 일반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 상품과 달리 리스크 문제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종신거주와 종신지급을 정부 보증을 통해 보장하고 있으며 대출금리가 상대적 으로 낮기 때문에 월 지급액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 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 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은 상품 경쟁력 측면에 서 주택연금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시중 은행 중 자체 역모기지론을 팔고 있는 곳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정도로 KB국민은행의 경우 2008년 상품 출시 이후 4년간 10여건의 판매에 그치 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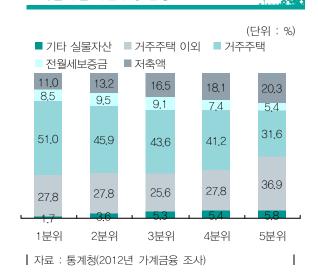
# 신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부에서는 주택연금 활성화와 하 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 저 주택연금의 초기 보증료를 대폭 인하한 신상품을 출시하고 초기 보증료를 인하하는 대신 연보증료는 인

#### 주택연금 가입 추이



#### 소득분위별 자산구성 현황



상하고 월지급금을 일부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 로 확대하고 수시인출금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 까지 확대하여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 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원) 혜택을 주었으나 개정 안 적용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사 람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2012년의 주택연금 일시인출 확대, 전후후박형 신상품 출시 등의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신정부의 정책 시행 으로 인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 해외에서는 민간 금융회사 중심의 주택연금 상품을 통해 활성화

미국의 경우 공적보증역모기지(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라는 공적 주택연금제도가 1989년 도입되어 연방주택청(FHA)이 주택연금으로 대 출손실을 입은 민간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금 융회사가 파산해 차입자에게 연금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인수해 차입 자에게 대신 주택연금을 지급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미국의 주택연금 시장은 정부가 주택연금 취급 금 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주택연금 보험을 도입한 것이 주택연금 시장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출채권의 경우 공적 주택금융기관 인 Fannie Mae가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역모기지 대 출에 따른 금융회사의 금리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택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신정부 추진 내용
가입요건	연령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가입연령 확대 만 60세 이상 → 50세 이상
연금지급방식	<ul> <li>종신지급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li> <li>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li> <li>※ 수시인출한도 50% 이내</li> </ul>	• 수시인출한도 확대 50% → 100%
지급유형	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정률)증가형: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정률)감소형: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다가 10년 경과 후 11년째부터 70%로 1회 감소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동일
연금지급 종료사유	•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등	동일
상환방법 및 금액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 가능	동일
월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월지급금 (예) 주택가격 5억원 기준 - 60세 : 115만원, 70세 : 168만원, 80세 : 262만원	동일

지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최근 미국 연방주택청은 단기, 소액의 연금이 필 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HECM Saver를 출시(초기 보증 료는 주택가격의 0.01%, 연보증료 1.25%, 월지급금은 HECM Standard의 80% 수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담보대출방식인 Home Income Plan과 주 택자산매각방식인 Home Reversion의 두 종류의 상품 이 존재하며 민간 생명보험사, 건축조합 또는 신탁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Home Income Plan의 경우 1965년부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를 시작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는 방식이며 평생에 걸쳐 월 지급금을 받는 방법과 일괄현금으로 받는 방법 중 선 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고령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무사시노 방식)과 민간 금융기관 지금을 재원으로 하는 알선융자방식(세 타가야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세 타가야 방식은 복지공사가 민간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이자의 상당액을 복 지공사가 무이자로 대출하는 형태이다.

# 주택연금 시장의 민간 참여확대와 리스크관리 · 소비자 보호대책이 필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주 택공사의 주택연금 상품 출시 전에도 몇몇 은행이 역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 바가 있으나 리스크 문제 등으 로 인해 일부 민간 금융회사는 계약을 중단하거나 이 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 나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연금이 은퇴대비 를 위한 상품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 부 주도의 상품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입맛

에 맞는 상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시중은행의 역모 기지론 상품의 근본적인 차이는 가입기간이 제한된다 는 점이다. 2004년 출시된 신한은행의 역모기지론은 가입 기간이 최장 15년이며 KB국민은행의 'KB주택연 금론'의 경우도 최장 30년으로 가입기간이 제한된다. 즉, 대출기간이 끝나면 역모기지론 차주는 대출원리금 을 전액 일시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주택을 경 매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출금리의 경우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비해 1~2%p 가량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 금융회사의 주도 로 가입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 하게 된다면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어려웠던 잠재 수요자까지 떠안을 수 있어 신규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금융회사가 파산해 차입자에게 연금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정부 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인수해 차입자에게 대신 주 택연금을 지급해주는 보증보험 형태의 제도를 확대한 다면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와 함께 주택 연금 판매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신용위험에 대 응하기 위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수수료체계와 불완 전판매 규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산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제 공받는 주택연금은 은퇴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연금 시장이 양적,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민 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다양한 니즈 를 가진 고령층 수요자를 위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금융회사의 대용



연구원 최 현 우 (hwchoi@hanafn.com)

"일본은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구조가 변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 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금융회사는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일본 고령자의 은행선호 등으로 고령화 대응 상 품은 대부분 은행을 중심으로 출시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 며, 고령자의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금융회사 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고령화에 적극적 으로 대용할 필요가 있다."



N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평균 수명이 82 세로 세계적인 장수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30%를 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며, 2011년 기준 총인구 약 1억 2,780만 명 중 고령인구는 2,97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총인구대비 고령자 비율, 즉 고령화율은 23.3%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인구 4~5명 중 한 명이 고령자이다. 인구 고령화는 점차 심화될 전망으로 일본의 전후 베 이비붐 세대인 47~49년생이 65세를 넘기는 2012년 부터 2015년까지 고령인구는 3,400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되고 있고. 고령화율도 25%를 넘길 것으로 일 본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 사망률·출생률 하락으로 급속한 고령화 진행

일본의 고령화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 번 째로 생활환경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망률이 하락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 인구가 점 차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사망률은 1950년 7.15% 이 었으나 2010년 3.47%까지 낮아졌다. 평균 수명도 1950년 남자 58.0세, 여자 61.5세에서 2010년 남자 79.64세, 여자 86.39세로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 수명 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 아졌다.

두 번째 요인은 출생률이 하락하여 인구증가율이 둔화 되고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 본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1947~1949년에 1차 베 이비 붐 세대 약 806만 명이 태어났고, 1971~1974년 에는 2차 베이비붐 세대 약 816만 명이 태어났다. 두 차례의 베이비 붐 세대 이후에는 출산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2차 베이비붐 직후 1975년 1.91명 에서 2010년 1.39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 고령화로 민간소비 형태가 변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우선 직접적으 로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를 목표로 하는 시장이 확대되는 등의 소비시장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는 자동차나 가구 등 내구재 소비를 줄이 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의료비 및 취미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고령 자의 대부분이 퇴직 이후 근로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 에 자산이 증가하기 어렵고, 자산규모 내에서 약 20년 간의 기대여명 동안 소비해야 하므로 소비량이 감소하 고 따라서 내수규모도 위축되는 영향을 보였다.

간접적으로는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령인구,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GDP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1인당 고령자 부양비용이 증가하여 소비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 시장으로 유임됨에 따라 육아 관련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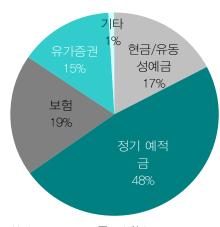
#### 은행 상품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대응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써 '고령사회백서' 를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든 1996년부터 발행 하고 있다. 고령화백서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고령화 대 책을 수립, 시행, 점검하고 있으며 일본은행협회의 조 사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 기 시작한 시점도 1996년경이다.

고령화에 대한 일본 금융회사의 움직임은 은행 중심인데 이는 고령자 가계의 금융자산 중 60% 이상이 현금/예금으로 구성된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금 등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70%의 은행은 고령자에 한정되지 않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대응을 살펴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한실버 정기예금이나 공적연금 등을 예금하는 연금정기예금 등의 예금 상품이 가장 기본적이다. 또한 연금지급 계좌를 보유한 고령자에게 금리 우대혜택이나 연금상담 서비스, ATM 이용 수수료 면제 등도 제공된다.

#### 일본 고령자 가계의 금융자산구성



| 자료: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高齢者,

통계청, 2012.9.16

2000년대 들어 버블붕괴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예금이자 소득이 감소하자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 용 수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신탁은행을 중심으로 금전 신탁을 통한 자산운영·관리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정기 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월 지급식 펀드 상품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나 REIT도 2001년 등장한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퇴직금을 보유한 고령자를 대상 으로 퇴직금 정기예금이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등장하는 등 상품이 다양화되었다. 또한 PB고객을 대상으로 신탁은행 등에서 제공하던 유언신 탁이나 유산정리 업무 등 상속 관련 금융 상품・서비스 도 퇴직금을 받은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점 차 일반화되었다.

금융상품·서비스 이외에도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과 같은 비대면 채널보다 지점 방문 등의 대면 채널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지점 설비 등을 고령자가 접근하 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한 금융회사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점 내 문 턱을 없애는 등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 으며, 금융 상품·서비스의 브로슈어나 ATM 화면의 글 자를 키우는 등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 고. 아이를 동반한 조부모가 지점을 편히 방문할 수 있 도록 지점 내에 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향도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간병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게 하거나 연수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육아 관련 수요가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상품도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육아 관련 수요에 대 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 및 대응이 고령화에 대한 대 응에 비해 늦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육아 관 련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60% 미만이고. 그 중 70%가 2006년 이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회사 내에 보육시설이나 놀 이시설을 구축하기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세대를 대 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나 어린이 보 험, 학자금 대출 등을 판매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2000 년대 후반 들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종합적인 금융 상품이 출시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처럼 고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금융상

품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목적도 있지만, 고령자인 조부모의 금융자산이 손자 세대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 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확대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금융회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현재 예·적금 상품 중심에서 투자신 탁이나 보험 상품에 이르기까지 그룹사의 다양한 상품 을 구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금융자산 이외에도 리 버스 모기지와 같은 고령자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 금융 자산을 활용하여 연금 형태로 제공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으며, 자녀 세대나 손자 등을 위해 활용하 는 금융상품・서비스도 출시되고 있다.

# 국내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대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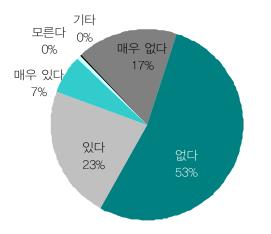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이르는 기간이 24 년으로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영국 47년 대비 매우 짧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사회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고령자 세대의 순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 보다는 은행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일본의 금융회 사는 고령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적었으며, 신상품 을 개발할 유인도 적은 편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출시된 고령사회 관련 금융상품 등은 대부분 기존 상품 등과 매우 유사하며 단지 고령 자 관련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자금의 예치 또는 지급 방식을 변경한 수준이다. 또한 자산 형성보다는 소비가 중심이 되는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유언신탁이나 리버스 모기지 이외에는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맞춘 상품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국내 고령화와 관련된 환경은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우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고령자는 일본의 고령자와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순 자산이 퇴직 후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수 입도 50대의 50% 미만으로 낮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령자가 40%에 이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빠른 고령화 속도와 고령자의 경제적 노 후 준비 미흡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1955~63년에 걸쳐 태어난 총 인구대비 14%인 713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퇴직하기 시작하여, 사회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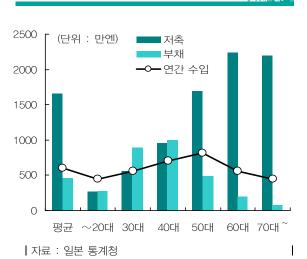
# 일본 고령자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우려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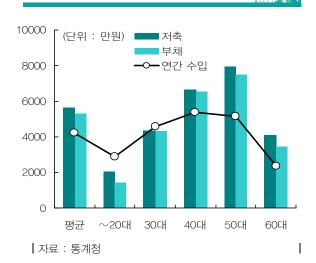
| 자료 : 일본 内閣府, 2012.9.16

이다. 국내의 경우 일본에 비해 은행 상품에 대한 선호가 낮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부채를 효율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일본에서와 같은 리버스모기지나 유언신탁 외에도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통해 적극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와 같이 고령자의 준비가 미흡한 환경에서는금융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 일본 가구주 세대별 저축 및 부채 현황



#### 한국 가구주 세대별 저축 및 부채 현황



# 해외 주식 중 이머징 주식 비중 축소

반면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중위험형 자산 비중 확대

이경영씨는 43세 직장인으로 60세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을 위해 월 3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국민연금 62만 원, 퇴직연금 22만원, 주택연금 50만원으로는 부 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경영씨는 향후 가입 하게 될 연금신탁을 통해 월 15만원 정도를 수령 할 것으로 보여 총 월 15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 재 보유한 금융자산 운용으로 연간 10.74%의 수 익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수익률 은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공격투자형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중립형 이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자산배분 비중 변화는 없으며 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과 동일)에 대해서는 해외주식형을 줄이고 중위험형의 비중을 늘 리는 것을 5월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제시한다.

선진시장은 경기 개선 기대 및 정책 일관성 등으로 양 호한 주가흐름을 보이는 반면 이머징 시장은 경제지표 부진과 더불어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조정 흐름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대비 이머징 증시의 디 커플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머징 시장의 비중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경우 미국 내 성장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의 투 자는 고려할 만한다.

또한 바닥에서 탈피하여 상승세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확대 전략은 유효한 것으로 판 단되며 다만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및 해외채권형 투자의 병행이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아시아 고배당주식과 하이일드 채권 등에 분산투 자하는 멀티 인컴형 펀드와 같은 중위험형 상품은 저 금리 시대에 유망한 대안상품으로 비중 확대가 요구된 다

####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5.0	15.0	25.0	32.5	45.0
해외주식	_	_	_	20.5(-2.0)	23.0(-2.0)
원자재	_	_	_	_	-
중위험형	_	_	_	9.5(+2.0)	9.5(+2.0)
ELS/ELD	10.0	12,5	15.0	10.0	10.0
국내채권	77.5	47.5	32.5	10.0	2.5
해외채권	_	17.5	20.0	15.0	7.5
현금성	7.5	7.5	7.5	2,5	2.5(

자료: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노후 재무설계** 행복가이드

# 첨부: 이경영씨의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주요 가정

- 1. 이경영씨(43세)는 60세에 은퇴하며 생명표에 의해 약 80세 전후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에 대한 가정은 2011년 통계청이 조사한 베이비 부머들의 희망 노후생활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안팎으로 조사 2. 이경영씨의 재무상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발표한 40~49세의 평균인을 적용. 아래 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주요 통계치를 요약. 실물자산 조정은 별도로 없으며 현재 보유 순실물자산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기로 함
- 3.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하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택가격 3억원을 60 세, 65세, 70세, 75세, 80세에 가입하면 69.1만원, 82.8만원, 100.6만원, 124.2만원, 156.9만원을 지급 4.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2012) 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평균 국민연금수

령액 62만원으로 가정하며 퇴직연금은 보험연구원에

- 서 추정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인 35% 와 12.5%를 감안하여 추산하였음
- 5. 연금신탁은 가처분소득에서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저축률 2.7%를 곱한 저축액(연간 약 118만원)을 60세 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함.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금융감 독원이 발표하는 은행 평균 수익률 4.1%를 적용
- 6. 월 부족자금은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에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신탁을 차감한 금액이고, 월 부족자금의 60세 시점의 현재가치 합은 20년간 5년 단위로 4.0%, 3.5% 3.0% 2.5%로 0.5%씩 차감한 할인율을 적용
- 7. 요구수익률은 현 시점에서의 순금융자산을 운용하여 60세 시점에서의 월 부족자금의 현재가치의 합이되기 위한 수익률로 함(한편, 이경영씨는 실물자산이적어 실물자산의 조정을 통한 추가 투자액이 없기 때문에 요구수익률은 50세 평균인보다 높게 나타남)
- 8. 이상의 가정은 평균인에 대한 수치로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

####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요약

(단위 : 만원)

연령대	자산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액	금융부채	실물부채	소득	비소비 지출	가처분 소득	저축액
30세 미만	9,614	4,970	4,644	1,441	1,153	288	2,896	401	2,495	67
30~39세	22,464	8,379	14,085	4,308	3,373	935	4,595	818	3,777	102
40~49세	33,132	9,476	23,658	6,519	4,674	1,845	5,395	1,035	4,360	118
50~59세	41,611	9,654	31,957	7,521	5,077	2,444	5,150	974	4,176	113
60세 이상	30,457	4,904	25,553	3,473	1,855	1,618	2,340	334	2,006	54
전체 평균	31,495	7,842	23,653	5,291	3,598	1,693	4,233	758	3,475	94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I

# 5월 국내 주식시장은 바닥에서 탈피하여 상슝세로 전환할 전망

월초부터 주식시장은 엔저와 북한 리스 크 등 기존 악재가 잔존한 가운데 STX 그룹 사태, GS건설 실적 악화 등 새로운 악재들이 추가되면서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이러한 가 운데 외국인의 매도세 증가로 KOSPI는 장중 한때 1900선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부진하였으나 시장 전 망치를 크게 밑돌지 않았으며 IT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감이 높다는 점에서 1900선이 강한 하방경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하였다.

또한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및 중국의 일시적인 경기지표 부진 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국내 경기도 경기부양책에 힘 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이익 수정비율 등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등 5월부터는 주식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 한국기업의 이익수정비율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 채권시장은 5월 금통위의 기준 금리 인하로 당분간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시장 대다수의 예상과 달리 4월 금통위가 6개월째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함에 따라 주요 금리가 20bp 정도 급등하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 나 안전자산으로 단기 부동화된 풍부한 시중자금이 유 입되면서 급등한 금리가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5월 금통위는 4월의 기준금리 동결과 1분기 양 호한 경제성장률로 동결기조 지속이 예상되었으나 세 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7개월만 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역사적인 저금리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분간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금리 추이



지료: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노후 재무설계** 행복가이드

#### 해외시장은 이머징 시장 부진으로 선진시장과의 차별화가 예상

미국시장은 재정절벽 협상결과에 따른 세금 인상 효과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경제지표 부진으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조정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기둔화 현상으로 보여지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개선이 예상된다. 유럽은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상환 연장, 이탈리아의 더 낮은 금리로의 국채 발행 성공 등으로 재정위기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독일의 경기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이탈리아의 조기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공격적인 양적 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이머징 국가의 경기부 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경 맞추어져 단기간 내 주가상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브라질 보베스파지수는 4월중 연중 최저치로 하락하며 부진한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이머징 시장보다는 선진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지표가 부진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는 개혁, 규제에 초점이

### 달러 강세 지속으로 실물수요에 의한 금가격 반등은 제한적일 전망

최근 회복을 보이던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유가. 금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다. 특히 금 가격의 경우 키프로스 금매각 계획 발표, 골드만삭스의 2013년 금 가격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금 ETF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금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인도의 경우 결혼시즌 에 돌입하는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실물 수요에 의한 금가격 반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이 뒷받침되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가격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GDP 성장률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재인용

#### 금가격 및 SPDR Gold Trust 금보유량



지료: J.P Morgan 자산운용, 하나대투증권

# 2013 美 근로자 은퇴 자신감 조사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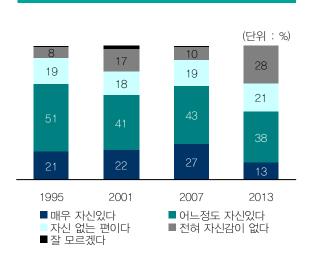
99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노후 생활 유지에 대한 美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사상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조사"

최근 미국 EBRI(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에서는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 및 은퇴자(근로자 1,003명, 은퇴자 251명)를 대상으로 은퇴 자신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노후 생활 자금 마련에 대해 충 분히 자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이 13%로 금 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 생활 자금 마련에 대해 전 혀 자신감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8%로 2007년 대 비 10%p나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서도 5%p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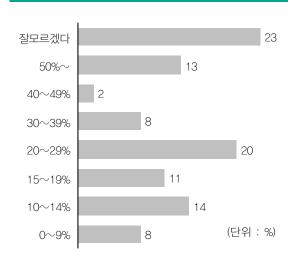
# 美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들이 은 퇴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최근에서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를 위해 얼마를 저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소 득의 20~29%를 저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0% 를 차지했고, 30%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 람의 비중도 23%에 달하였다. 전반적으로 은퇴자금 마 련을 위한 저축 목표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그만큼 저축을 할 여력은 없었 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했을 것으 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렇게 공격적인 저축 목표 설정이 개인의 구 체적 경제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은퇴 생활 자금 계 산에 기반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만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금의 규모와 이를 위해 매 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생활 자금 계산, 즉 은퇴설계의 실행 가능성은 가계 소득의 규모가 클수록,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이 미혼에 비해. DC형 가입 자가 DB형 가입자에 비해 은퇴설계를 해 본 경험이

#### 은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축 수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생활 자금 계산의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계산보다는 직관적인 추론을 통해 도출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5%에 달한 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한다는 응답자 및 온라인 은퇴 자금 계산기를 활용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18%, 8%에 불과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근로자들의 낮은 은퇴 자신감의 또다른 이유로 은퇴 지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재무적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미국인들이 현재 가장 급하게 당면한 재무적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응답자의 30%가 고용 불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생활비 충당(12%), 가계적자(8%),건강 및 의료보험 납부(9%), 세금(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가장 중요한 재무적 이슈라고 응답한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하였다.

한편 전체 근로자들 가운데 은퇴에 대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지난 2009년 75%에서 2013년 66%로 하락하였다. 특히 연간 가계소득이 35,000달러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9년 49%에서 2013년 24%로 절반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美 근로자의 은퇴 생활자금 계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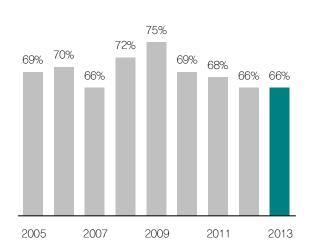
연간 가계 소득 75,000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률이 94%로 2007년(93%)대비 오히려 증가하는 등 소득 계층별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저축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미국 근로자들이 보유한 부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5%가 현재 보유한 부 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당장 다음달에 예상치 못하게 2,000달러가 필요할 경우 이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 하는 등 현재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은퇴 시장의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노후 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 중인 국내 시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은퇴 준비는 다른 어떤 계획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은퇴설계야 말로 은퇴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The 2013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EBR, 2013.3)

#### 美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률





# 2016년부터 60살 정년연장 시행



"직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 및 기업은 2016년1월1일부터, 300명 미만 지방자치 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1월1일부터 정년 연장법 적용"

지난 4월 30일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는 모든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고 대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임금체계조정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를 지나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24.3%)이 노인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돌아서고,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중 핵심 생산층(25~49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쳐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년 60세가 권고조항으로 강제력이 없이 적용되었던 현행법을 개정, 사업주가 정년을 60 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법안 시행 후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협의에 맡겨진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선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첫 대상이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국가·지자체및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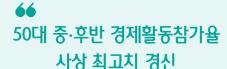
한편, 정년연장법의 시행은 결정되었지만 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재계에 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 임금대비 생산성 저하, 신규 청 년 인력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계 개편 내용이 법률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시행에 있어 노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일반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법 통과 직후인 지난 5월 3일 시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가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 의견은 18%에 그쳤으며, 5%는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응답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70%를 웃돌아, 청년실업에 고민하고 있는 2~30대와 중장년층 간 세대 갈등 발생가능성이 우려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법의 시행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작용을 줄이는 일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부담은 경력자들의 오랜 노하우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높은 임금만 고수하기 보다는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 도입을보다 유연한 태도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3.4)

**국내외 단신** 행복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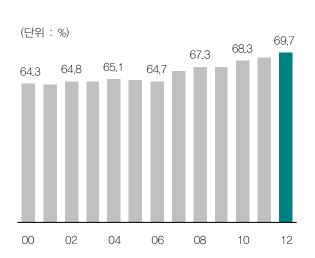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50대 편입으로 2012년 기준 만 55~5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70%에 육박"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두 달 연속 취업자수 증가 폭이 저조하며 고용 시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5~59세의 고용률은 2000년 62.2%에서 2012년 68.1%를 찍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68%선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 란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취업자와 일을 하지 는 않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5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7%로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

55~59세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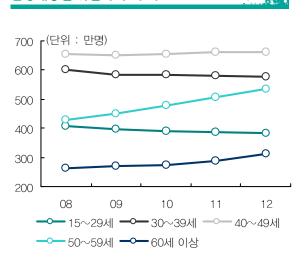
하였다. 2000년 64.3%에서 꾸준히 상승한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2009년에 잠시 정체 됐다가 2010년 68.3%, 2011년 68.9%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50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2013년 기준 1955년생은 58세, 1963년 생은 50대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50대에 들어서면서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세대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55~59세의 경우 대부분이은퇴후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마련인데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 수준은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 인력의 질적인 고용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탄력적 시행이 전제 된 정년 연장의 적극적인 시행이바람직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3년 3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4)

#### 연령계츙별 취업자 수 추이



# **연금보험**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완성

####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

연금보험은 젊을 때 적립한 연금 적립금액을 바탕으로 은퇴 시점부터 연금 형태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은퇴상품이다. 지난 2005년 국내에도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 입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층 연금 체계를 미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 다. 연금보험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에 이어 3 층인 개인연금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으로 특히 40%대 초반에 불과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낮은 소득 대 체율을 보완하여 충분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 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연금보험은 생존기간 내내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으로서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10년 이상 계약기간을 유지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 투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보유

연금보험은 연금지급 기간, 세제혜택 여부, 피보험자수, 투자유형 등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먼저 연금 지급기간에 따라서는 확정된 연령 혹은 시기 동안 지급되는 정기연금과 생존기간 내내 지급되는 종신연금으로 구분된다. 둘째, 소득공제 또는 자본이득에 세금이 감면 또는 면세되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제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할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한명인 단생연금과 피보험자가여러명인 연생연금으로도 구분할수 있다. 마지막으로투자유형에 따라서 납입보험료를 금리에 연동하는 일반형 연금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연금수령액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연금이 존재한다. 실적배당형 연금은 다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연금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하는

#### 투자유형에 따른 연금보험 비교



		이비스	실적배당형				
		일반형	자산연계형				
	공통점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del>-</del> 1	최저보증이율	있음	실적배당	최저보증 0%			
차 이	예금자보호 5천만원 한도 보호		천만원 한도 보호 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				
점	중도인출	불가	가능	선택 가능			
장점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수령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수령 가능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헷지를 통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전	변액연금보다는 안정적인 연금수령 가능			
	단점	물가상승에 따른 현금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없음	투자성과가 나쁠 경우 연금수령액 감소				

**상품브리프** 행복가이드

자산연계형 연금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특히 투자유형에 따라 연금보험은 상이한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먼저 일반형의 경우 금리형 상품으로 적은 수익률이지만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만 수익률에 대한 보증이 없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금보험은 중도 해약 시 손해가 발생하는 보험상품인만큼 가입자는 본 인의 상황과 목적 그리고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 품을 비교해보고 적절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 무배당 넘버원 적립연금보험





#### 하나은행, 『행복연금통장』 새롭게 출시

하나은행은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노령연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고금리 및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연금통장」을 8일부터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수시 입출식 저축예금으로 연금 이체 시연 1.7%의 금리와 추가 조건 만족 시 0.3%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하나대투중권, 『건강한 금융, 행복한 가정』 고객 이벤트 실시

하나대투증권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연금저축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한 금융. 행복한 가정」 고객 이벤트를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금저 축계좌 가입 고객 중 이벤트 대상 고객을 선정하여 20 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제공하고, 선착순 200명에 게는 통장에 가족사진 인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외환은행, 신상품 『KEB행복나눔대출』 출시

외환은행은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대출 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은행 자체 서민금융 대출 상 품인 「KEB행복나눔대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고 3백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소액, 단기 신용 대출 상품으로 대출금리는 최저 연 6.91%~최고 13% 수준으로 성실상환 시 금리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하나생명, 건강한 종신보험 출시 및 행복금융프라자 출범

하나생명은 4월 15일 다이렉트 전용 종신보험보다 더 저렴한 『무배당 건강한 종신보험(1.1)』을 출시했다. 위 상품은 업계 최초로 정규직 직원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으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해 보험료를 낮추고 해지 환급금을 높였으며, 행복금융프라자 신설을 통해 평생보험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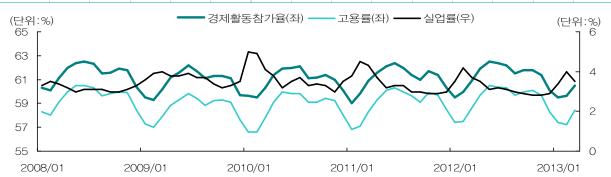


**연금 통계** 행복가이드

**경제 활동** 통계청

####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ر_نـــ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3	59.9	8.4	60.9	74.5	78.9	72.4	35.0	57.7	7.6	55.8	72.0	77.2	70.8	33.8
2013.2	59.6	8.8	60.7	74.5	78.6	72.1	34.2	57.3	7.9	55.3	71.9	76.9	70.2	32.6
2013.3	60.5	6.6	61.0	74.6	79.4	73.5	37.5	58.4	6.0	55.8	72.2	77.5	71.9	36.6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1.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신포	중기업시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가입자	가입자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1	20,200,594	1,200,352	11,415,130	8,485,419	1,941,567	6,543,825	208,754	91,291
2013.2	20,183,358	1,208,903	11,476,447	8,412,698	1,924,888	6,487,810	201,531	92,682

#### 2. 2013년 2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연금 통계 행복가이드

# 주택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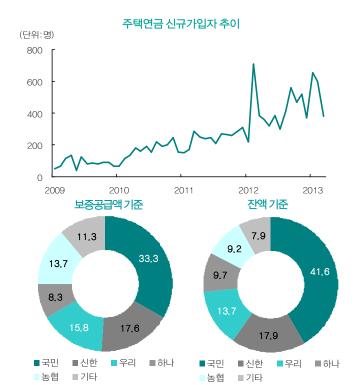
####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월보

#### 1. 신규 가입 및 보즁귱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45
2010.12	2,016	3,036,120
2011.12	2,936	4,099,970
2012.12	5,013	6,900,600
2013.1~3	1,633	2,134,900
2013.2	599	812,591
2013.3	381	422,567

# 2. 2013년 3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단위 : 백만권)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408	76,483
신한은행	744	32,928
우리은행	669	25,219
하나은행	350	17,791
농협	577	16,980
기타	477	14,487
합계	4,225	183,888



# 퇴직연금

#### 노동부,금융감독원

#### 1. 2013년 2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1. 2013년 2월 기군 기급 モエハナ 夫 시급시 단경, 게っナ(ヨ기군) (단위: 명, 건)											
구분		근로	<b>르</b> 자		사업자						
丁正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064,999	4,848,366	1,189,060	85,619	1,165,114	77,657	88,327	45,499			
생명보험	2,905,350	2,642,209	163,845	3,632	177,518	50,118	14,755	1,767			
손해보험	1,000,489	942,865	54,293	251	21,502	1,940	16,109	223			
증권	2,779,131	2,348,715	379,374	1,142	85,955	2,905	6,090	119			
근로공단	65,561	_	64,055	489	19,638	_	19,410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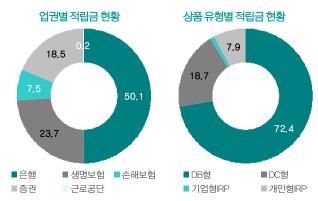
####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2. ΔΙΤΗ Ο Ι	에ㅗㅠ 6 글 ㅗㅂ시 ᆸ 6 건 6 (단위 : 개소, %)											
구분	구분 합계		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E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1 &	H/11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09	185,689	63,150	34.0	3,881	2.1	89,571	48.2	29.087	15.7			
2012.10	189,644	64,139	33.8	4,142	2.2	92,215	48.6	29,148	15.4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1	207,319	69,012	33.3	4,641	2.2	103,716	50.0	29,950	14.4			

**연금 통계** 행복가이드

#### 3. 2013년 2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675,911	213,172	82,490	6,369	36,767
은행	338,798	135,590	17,300	156	6,822
생명보험	159,868	44,876	4,114	9	1,827
손해보험	50,825	96,001	21,534	18	7,752
증권	125,306	0	1,096	12	6
근로공단	1,114	489,639	126,534	6,564	53,174



#### 4. 2013년 2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단위 : 억원, %)

기비		DB	형	DB	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적금		245,976	50.2	75.623	59.8	5,731	87.3	33,815	63.6	361,146	53.4
		금리확정형보험	170,059	34.7	12,539	9.9	107	0.0	6,934	13.0	189,639	28.1
		금리연동형보험	24,003	4.9	4,539	3.6	52	1.6	1,147	2.2	29,741	4.4
워	국채		526	0.1	1,109	0.9	0	0.8	1,618	3.0	3,253	0.5
원리금보장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모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상		원리금보장ELS	34,423	7.0	1,943	1.5	0	0.0	2,437	4.6	38,803	5.7
	RP		7,609	1.6	1,468	1.2	1	0.0	802	1.5	9,880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23	0.1	0	0.0	32	0.1	155	0.0
	기타		607	0.1	406	0.3	0	0.0	148	0.3	1,161	0.2
	원리보장금 소계		483,204	98.7	97,751	77.3	5,892	89.8	46,932	88.3	633,778	93.8
	실적배당형 보험		169	0.0	1,526	1.2	9	0.1	354	0.7	2,057	0.3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835	0.2	931	0.7	0	0.0	35	0.1	1,801	0.3
		혼합형	1,057	0.2	12,191	9.6	185	2.8	1,288	2.4	14,721	2.2
실		채권형	2,694	0.6	12,122	9.6	413	6.3	1,890	3.6	17,118	2.5
실적배당		재간접	1	0.0	170	0.1	0	0.0	24	0.0	196	0.0
당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13	0.1	521	0.4	33	0.5	44	0.1	911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5,068	1.0	27,462	21.7	640	9.7	3,634	6.8	36,803	5.4
	직접투자		254	0.1	98	0.1	0	0.0	245	0.5	597	0.1
	실적배당 소계		5,322	1,1	27,559	21.8	640	9.7	3,879	7.3	37,400	5.5
	디	배기성 자금	1,114	0.2	1,224	1.0	33	0.5	2,362	4.4	4,733	0.7
		총계	489,639	100.0	126,534	100.0	6,564	100.0	53,174	100.0	675,911	100.0

#### 5. 2013년 2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_,										
78	은	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구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20,126	94.5	153,780	96.2	49,937	98.3	108,838	86.9	1,097	98.5
실적배당형	15,914	4.7	5,813	3.6	799	1.6	14,868	11.9	7	0.6
기타	2,758	0.8	275	0.2	89	0.2	1,600	1.3	10	0.9
합계	338,798	100.0	159,868	100.0	50,825	100.0	125,306	100.0	1,114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연구원 최 성 민 (sungmin.choi@hanafn.com)

"주택연금은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 내 실정상 은퇴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과 정부의 혜택제공으로 인해 신규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 연금 가입연령 및 수시인출금 한도를 확대하는 조 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에서 는 리스크로 인해 주택연금 시장 참여가 미흡한 실 정이며 미국 등의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 금융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 해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 은퇴대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

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 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현행 국내 주택연금 상품은 한국주택금 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역모기지론의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을 가리킨다.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출시된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 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은퇴를 앞둔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부분은 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은퇴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가계자산은 실물자산 75.1%, 금융자산24.9%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60% 수준에 불과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수준이다.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비중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 이후 매년 신규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신규가입자가 5천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도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ana Institute of Finance

이슈포커스 행복가이드

# 주택연금의 가입독려를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참여 미흡

주택연금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 시 보장한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평생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은퇴 후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금리가 낮고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자비용의 경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상속받고 부부 모두사망 시 또는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정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항상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주택연금 상품은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고령층에게 적절한 여유 생활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계약자의 사망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계약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까 지 장기간에 걸쳐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을 갚아내 는 자금의 원천이 상환시점의 주택가격이므로 돈을 빌 려주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금 융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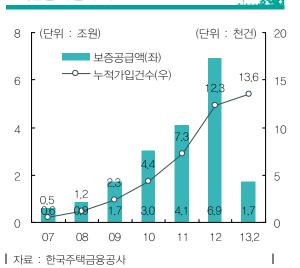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의 일반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 상품과 달리 리스크 문제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종신거주와 종신지급을 정부 보증을 통해 보장하고 있으며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월 지급액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은 상품 경쟁력 측면에서 주택연금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시중 은행 중 자체 역모기지론을 팔고 있는 곳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정도로 KB국민은행의 경우 2008년 상품 출시 이후 4년간 10여건의 판매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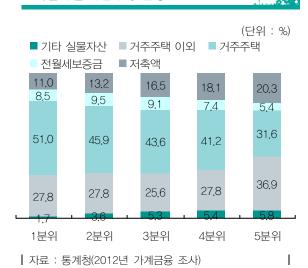
# 신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부에서는 주택연금 활성화와 하 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 저 주택연금의 초기 보증료를 대폭 인하한 신상품을 출시하고 초기 보증료를 인하하는 대신 연보증료는 인

#### 주택연금 가입 추이



#### 소득분위별 자산구성 현황



상하고 월지급금을 일부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시인출금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까지 확대하여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원) 혜택을 주었으나 개정 안 적용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사람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2012년의 주택연금 일시인출 확대, 전후후박형 신상품 출시 등의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신정부의 정책 시행 으로 인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 해외에서는 민간 금융회사 중심의 주택연금 상품을 통해 활성화

미국의 경우 공적보증역모기지(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라는 공적 주택연금제도가 1989년 도입되어 연방주택청(FHA)이 주택연금으로 대출손실을 입은 민간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금융회사가 파산해 차입자에게 연금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인수해 차입자에게 대신 주택연금을 지급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주택연금 시장은 정부가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주택연금 보험을 도입한 것이 주택연금 시장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출채권의 경우 공적 주택금융기관인 Fannie Mae가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역모기지 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의 금리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택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신정부 추진 내용
가입요건	연령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가입연령 확대 만 60세 이상 → 50세 이상
연금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수시인출한도 50% 이내	• 수시인출한도 확대 50% → 100%
지급유형	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정률)증가형: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정률)감소형: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다가 10년 경과 후 11년째부터 70%로 1회 감소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동일
연금지급 종료사유	•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등	동일
상환방법 및 금액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 가능	동일
월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월지급금 (예) 주택가격 5억원 기준 - 60세 : 115만원, 70세 : 168만원, 80세 : 262만원	동일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Hana Institute of Finance

이슈포커스 행복가이드

또한 최근 미국 연방주택청은 단기, 소액의 연금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HECM Saver를 출시(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0.01%, 연보증료 1.25%, 월지급금은 HECM Standard의 80% 수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담보대출방식인 Home Income Plan과 주택자산매각방식인 Home Reversion의 두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며 민간 생명보험사, 건축조합 또는 신탁회사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Home Income Plan의 경우1965년부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를 시작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는 방식이며 평생에 걸쳐 월지급금을 받는 방법과 일괄현금으로 받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고령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무사시노 방식)과 민간 금융기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알선융자방식(세 타가야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세 타가야 방식은 복지공사가 민간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이자의 상당액을 복 지공사가 무이자로 대출하는 형태이다.

# 주택연금 시장의 민간 참여확대와 리스크관리 · 소비자 보호대책이 필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주 택공사의 주택연금 상품 출시 전에도 몇몇 은행이 역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 바가 있으나 리스크 문제 등으 로 인해 일부 민간 금융회사는 계약을 중단하거나 이 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 나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연금이 은퇴대비 를 위한 상품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 부 주도의 상품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입맛 에 맞는 상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시중은행의 역모 기지론 상품의 근본적인 차이는 가입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2004년 출시된 신한은행의 역모기지론은 가입 기간이 최장 15년이며 KB국민은행의 'KB주택연금론' 의 경우도 최장 30년으로 가입기간이 제한된다. 즉, 대출기간이 끝나면 역모기지론 차주는 대출원리금을 전액 일시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주택을 경매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출금리의 경우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비해 1~2% 가량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 금융회사의 주도로 가입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면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어려웠던 잠재 수요자까지떠안을 수 있어 신규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금융회사가파산해 차입자에게 연금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정부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인수해 차입자에게 대신 주택연금을 지급해주는 보증보험 형태의 제도를 확대한다면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와 함께 주택연금 판매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수수료체계와 불완전판매 규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산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제 공받는 주택연금은 은퇴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연금 시장이 양적,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민 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다양한 니즈 를 가진 고령층 수요자를 위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금융회사의 대응



연구원 최 현 우 (hwchoi@hanafn.com)

"일본은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구조가 변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 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금융회사는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일본 고령자의 은행선호 등으로 고령화 대응 상 품은 대부분 은행을 중심으로 출시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 며, 고령자의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금융회사 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고령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N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평균 수명이 82 세로 세계적인 장수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30%를 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며, 2011년 기준 총인구 약 1억 2,780만 명 중 고령인구는 2,97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총인구대비 고령자 비율, 즉 고령화율은 23.3%로 역대최고 수준이고, 인구 4~5명 중 한 명이 고령자이다. 인구 고령화는 점차 심화될 전망으로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47~49년생이 65세를 넘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령인구는 3,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고령화율도 25%를 넘길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 사망률·출생률 하락으로 급속한 고령화 진행

일본의 고령화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로 생활환경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망률이 하락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사망률은 1950년 7.15% 이었으나 2010년 3.47%까지 낮아졌다. 평균 수명도 1950년 남자 58.0세, 여자 61.5세에서 2010년 남자 79.64세, 여자 86.39세로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졌다.

두 번째 요인은 출생률이 하락하여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1947~1949년에 1차 베이비 붐 세대 약 806만 명이 태어났고, 1971~1974년에는 2차 베이비붐 세대 약 816만 명이 태어났다. 두차례의 베이비 붐 세대 이후에는 출산수가 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Hana Institute of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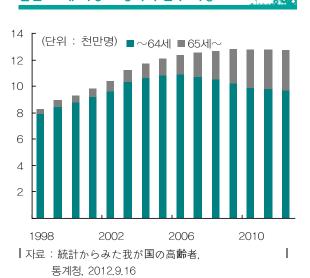
평균 출생아 수)도 2차 베이비붐 직후 1975년 1.91명 에서 2010년 1.39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 고령화로 민간소비 형태가 변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우선 직접적으 로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를 목표로 하는 시장이 확대되는 등의 소비시장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는 자동차나 가구 등 내구재 소비를 줄이 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의료비 및 취미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고령 자의 대부분이 퇴직 이후 근로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 에 자산이 증가하기 어렵고, 자산규모 내에서 약 20년 간의 기대여명 동안 소비해야 하므로 소비량이 감소하 고 따라서 내수규모도 위축되는 영향을 보였다.

간접적으로는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령인구,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GDP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1인당 고령자 부양비용이 증가하여 소비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 시장으로 유임됨에 따라 육아 관련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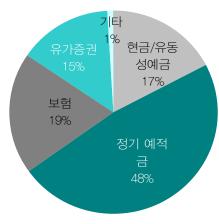
#### 은행 상품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대응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써 '고령사회백서' 를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든 1996년부터 발행 하고 있다. 고령화백서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고령화 대 책을 수립, 시행, 점검하고 있으며 일본은행협회의 조 사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 기 시작한 시점도 1996년경이다.

고령화에 대한 일본 금융회사의 움직임은 은행 중심인데 이는 고령자 가계의 금융자산 중 60% 이상이 현금/예금으로 구성된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금 등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70%의 은행은 고령자에 한정되지 않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대응을 살펴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한실버 정기예금이나 공적연금 등을 예금하는 연금정기예금 등의 예금 상품이 가장 기본적이다. 또한 연금지급 계좌를 보유한 고령자에게 금리 우대혜택이나 연금상담 서비스, ATM 이용 수수료 면제 등도 제공된다.

#### 일본 고령자 가계의 금융자산구성



이슈포커스 행복가이드

2000년대 들어 버블붕괴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예금이자 소득이 감소하자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수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신탁은행을 중심으로 금전신탁을 통한 자산운영·관리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월 지급식 펀드 상품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J-REIT도 2001년 등장한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퇴직금을 보유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정기예금이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등장하는 등 상품이 다양화되었다. 또한 PB고객을 대상으로 신탁은행 등에서 제공하던 유언신탁이나 유산정리 업무 등 상속 관련 금융 상품·서비스도 퇴직금을 받은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점차 일반화되었다.

금융상품·서비스 이외에도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과 같은 비대면 채널보다 지점 방문 등의 대면 채널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지점 설비 등을 고령자가 접근하 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한 금융회사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점 내 문 턱을 없애는 등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 으며, 금융 상품·서비스의 브로슈어나 ATM 화면의 글 자를 키우는 등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 고. 아이를 동반한 조부모가 지점을 편히 방문할 수 있 도록 지점 내에 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향도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간병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게 하거나 연수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육아 관련 수요가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상품도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육아 관련 수요에 대 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 및 대응이 고령화에 대한 대 응에 비해 늦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육아 관 련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60% 미만이고. 그 중 70%가 2006년 이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회사 내에 보육시설이나 놀이시설을 구축하기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세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나 어린이 보험, 학자금 대출 등을 판매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종합적인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처럼 고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목적도 있지만, 고령자인

이저럼 고령사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목적도 있지만, 고령자인 조부모의 금융자산이 손자 세대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금융회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현재 예·적금 상품 중심에서 투자신탁이나 보험 상품에 이르기까지 그룹사의 다양한 상품을 구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금융자산 이외에도 리버스 모기지와 같은 고령자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자산을 활용하여 연금 형태로 제공하는 상품도출시되고 있으며, 자녀 세대나 손자 등을 위해 활용하는 금융상품·서비스도 출시되고 있다.

# 국내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대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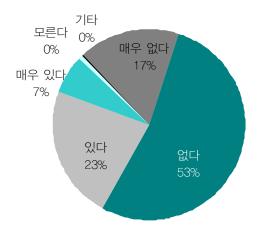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이르는 기간이 24년으로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영국 47년 대비매우 짧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사회 시스템이 적응할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고령자 세대의 순 자산 규모가크기 때문에 특별한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 보다는 은행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일본의 금융회사는 고령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적었으며,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도 적은 편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출시된 고령사회 관련 금융상품 등은 대부분 기존 상품 등과 매우 유사하며 단지 고령 자 관련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자금의 예치 또는 지급 방식을 변경한 수준이다. 또한 자산 형성보다는 소비가 중심이 되는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유언신탁이나 리버스 모기지 이외에는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맞춘 상품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국내 고령화와 관련된 환경은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우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고령자는 일본의 고령자와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순 자산이 퇴직 후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수 입도 50대의 50% 미만으로 낮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령자가 40%에 이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빠른 고령화 속도와 고령자의 경제적 노 후 준비 미흡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1955~63년에 걸쳐 태어난 총 인구대비 14%인 713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퇴직하기 시작하여, 사회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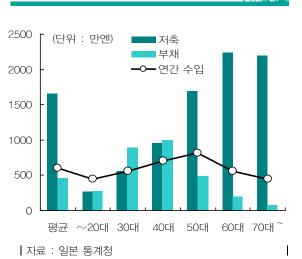
# 일본 고령자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우려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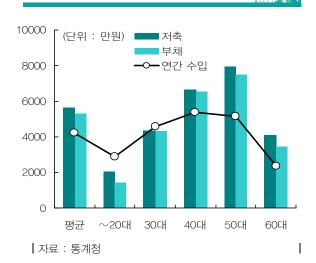
| 자료 : 일본 内閣府, 2012.9.16

이다. 국내의 경우 일본에 비해 은행 상품에 대한 선호가 낮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부채를 효율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일본에서와 같은 리버스모기지나 유언신탁 외에도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통해 적극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와 같이 고령자의 준비가 미흡한 환경에서는금융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 일본 가구주 세대별 저축 및 부채 현황



#### 한국 가구주 세대별 저축 및 부채 현황



# 해외 주식 중 이머징 주식 비중 축소

#### 반면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중위험형 자산 비중 확대

이경영씨는 43세 직장인으로 60세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을 위해 월 3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국민연금 62만 원, 퇴직연금 22만원, 주택연금 50만원으로는 부 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경영씨는 향후 가입 하게 될 연금신탁을 통해 월 15만원 정도를 수령 할 것으로 보여 총 월 15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 재 보유한 금융자산 운용으로 연간 10.74%의 수 익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수익률 은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공격투자형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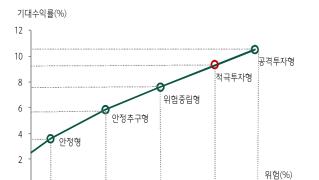
위험중립형 이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자산배분 비중 변화는 없으며 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과 동일)에 대해서는 해외주식형을 줄이고 중위험형의 비중을 늘 리는 것을 5월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제시한다.

선진시장은 경기 개선 기대 및 정책 일관성 등으로 양 호한 주가흐름을 보이는 반면 이머징 시장은 경제지표 부진과 더불어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조정 흐름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대비 이머징 증시의 디 커플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머징 시장의 비중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경우 미국 내 성장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의 투 자는 고려할 만한다.

또한 바닥에서 탈피하여 상승세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확대 전략은 유효한 것으로 판 단되며 다만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및 해외채권형 투자의 병행이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아시아 고배당주식과 하이일드 채권 등에 분산투 자하는 멀티 인컴형 펀드와 같은 중위험형 상품은 저 금리 시대에 유망한 대안상품으로 비중 확대가 요구된 다

####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10

15

20

1

자료: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5

0

####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5.0	15.0	25.0	32.5	45.0				
해외주식	_	-	_	20.5(-2.0)	23.0(-2.0)				
원자재	_	_	_	_	-				
중위험형	_	_	_	9.5(+2.0)	9.5(+2.0)				
ELS/ELD	10.0	12.5	15.0	10.0	10.0				
국내채권	77.5	47.5	32.5	10.0	2.5				
해외채권	_	17.5	20,0	15.0	7.5				
현금성	7.5	7.5	7.5	2,5	2.5(				

자료: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Hana Institute of Finance

**노후 재무설계** 행복가이드

# 첨부: 이경영씨의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주요 가정

- 1. 이경영씨(43세)는 60세에 은퇴하며 생명표에 의해 약 80세 전후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에 대한 가정은 2011년 통계청이 조사한 베이비 부머들의 희망 노후생활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안팎으로 조사 2. 이경영씨의 재무상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발표한 40~49세의 평균인을 적용. 아래 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주요 통계치를 요약. 실물자산 조정은 별도로 없으며 현재 보유 순실물자산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기로 함
- 3.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하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택가격 3억원을 60 세, 65세, 70세, 75세, 80세에 가입하면 69.1만원, 82.8만원, 100.6만원, 124.2만원, 156.9만원을 지급 4.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2012) 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평균 국민연금수 령액 62만원으로 가정하며 퇴직연금은 보험연구원에

- 서 추정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인 35% 와 12.5%를 감안하여 추산하였음
- 5. 연금신탁은 가처분소득에서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저축률 2.7%를 곱한 저축액(연간 약 118만원)을 60세 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함.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금융감 독원이 발표하는 은행 평균 수익률 4.1%를 적용
- 6. 월 부족자금은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에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신탁을 차감한 금액이고, 월 부족자금의 60세 시점의 현재가치 합은 20년간 5년 단위로 4.0%, 3.5% 3.0% 2.5%로 0.5%씩 차감한 할인율을 적용
- 7. 요구수익률은 현 시점에서의 순금융자산을 운용하여 60세 시점에서의 월 부족자금의 현재가치의 합이되기 위한 수익률로 함(한편, 이경영씨는 실물자산이적어 실물자산의 조정을 통한 추가 투자액이 없기 때문에 요구수익률은 50세 평균인보다 높게 나타남)
- 8. 이상의 가정은 평균인에 대한 수치로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

####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요약

.....

(단위 : 만원)

연령대	자산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액	금융부채	실물부채	소득	비소비 지출	가처분 소득	저축액
30세 미만	9,614	4,970	4,644	1,441	1,153	288	2,896	401	2,495	67
30~39세	22,464	8,379	14,085	4,308	3,373	935	4,595	818	3,777	102
40~49세	33,132	9,476	23,658	6,519	4,674	1,845	5,395	1,035	4,360	118
50~59세	41,611	9,654	31,957	7,521	5,077	2,444	5,150	974	4,176	113
60세 이상	30,457	4,904	25,553	3,473	1,855	1,618	2,340	334	2,006	54
전체 평균	31,495	7,842	23,653	5,291	3,598	1,693	4,233	758	3,475	94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I

# 5월 국내 주식시장은 바닥에서 탈피하여 상슝세로 전환할 전망

월초부터 주식시장은 엔저와 북한 리스크 등 기존 악재가 잔존한 가운데 STX 그룹 사태, GS건설 실적 악화 등 새로운 악재들이 추가되면서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 증가로 KOSPI는 장중 한때 1900선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부진하였으나 시장 전 망치를 크게 밑돌지 않았으며 IT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감이 높다는 점에서 1900선이 강한 하방경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하였다.

또한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및 중국의 일시적인 경기지표 부진 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국내 경기도 경기부양책에 힘 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이익 수정비율 등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등 5월부터는 주식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 한국기업의 이익수정비율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 채권시장은 5월 금통위의 기준 금리 인하로 당분간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시장 대다수의 예상과 달리 4월 금통위가 6개월째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함에 따라 주요 금리가 20bp 정도 급등하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안전자산으로 단기 부동화된 풍부한 시중자금이 유입되면서 급등한 금리가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5월 금통위는 4월의 기준금리 동결과 1분기 양호한 경제성장률로 동결기조 지속이 예상되었으나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역사적인 저금리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분간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금리 추이



지료 :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Hana Institute of Finance

**노후 재무설계** 행복가이드

# 해외시장은 이머징 시장 부진으로 선진시장과의 차별화가 예상

미국시장은 재정절벽 협상결과에 따른 세금 인상 효과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경제지표 부진으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조정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기둔화 현상으로 보여지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개선이 예상된다. 유럽은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상환 연장, 이탈리아의 더 낮은 금리로의 국채 발행 성공 등으로 재정위기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독일의 경기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이탈리아의 조기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공격적인 양적 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이머징 국가의 경기부 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경 그러나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는 개혁,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단기간 내 주가상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브라질 보베스파지수는 4월 중 연중 최저치로 하락하며 부진한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이머징 시장보다는 선진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지표가 부진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달러 강세 지속으로 실물수요에 의한 금가격 반등은 제한적일 전망

최근 회복을 보이던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유가. 금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다. 특히 금 가격의 경우 키프로스 금매각 계획 발표, 골드만삭스의 2013년 금 가격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금 ETF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금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인도의 경우 결혼시즌 에 돌입하는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실물 수요에 의한 금가격 반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이 뒷받침되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가격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GDP 성장률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재인용

#### 금가격 및 SPDR Gold Trust 금보유량



지료: J.P Morgan 자산운용, 하나대투증권

# - **66** 2013 美 근로자 은퇴 자신감 조사

99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노후 생활 유지에 대한 美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사상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조사"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최근 미국 EBRI(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서는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 및 은퇴자(근로자 1,003명, 은퇴자 251명)를 대상으로 은퇴 자신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노후 생활 지금 마련에 대해 충분히 자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이 13%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 생활 자금 마련에 대해 전혀 자신감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8%로 2007년 대비 10%p나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서도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퇴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최근에서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를 위해 얼마를 저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소 득의 20~29%를 저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0% 를 차지했고, 30%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 람의 비중도 23%에 달하였다. 전반적으로 은퇴자금 마 련을 위한 저축 목표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그만큼 저축을 할 여력은 없었 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했을 것으 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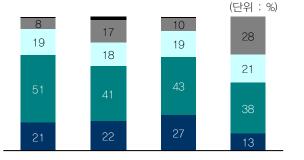
같은 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들이 은

문제는 이렇게 공격적인 저축 목표 설정이 개인의 구체적 경제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은퇴 생활 자금 계산에 기반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조사 대상자의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만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이를 위해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생활 자금 계산, 즉 은퇴설계의실행 가능성은 가계 소득의 규모가 클수록, 응답자의학력이 높을수록,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이 미혼에 비해, DC형 가입자가 DB형 가입자에 비해 은퇴설계를 해 본 경험이

#### 美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감

2001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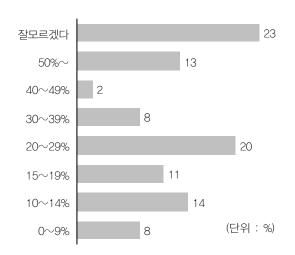


■ 매우 자신있다 ■ 어느정도 자신있다 ▼ 자신 없는 편이다 ■ 전혀 자신감이 없다 ■ 잘 모르겠다

2007

2013

#### 은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축 수준



Hana Institute of Finance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생활 자금 계산의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계산보다는 직관적인 추론을 통해 도출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5%에 달한 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한다는 응답자 및 온라인 은퇴 자금 계산기를 활용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18%, 8%에 불과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근로자들의 낮은 은퇴 자신감의 또다른 이유로 은퇴 지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재무적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미국인들이 현재 가장 급하게 당면한 재무적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응답자의 30%가 고용 불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생활비 충당(12%), 가계적자(8%),건강 및 의료보험 납부(9%), 세금(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가장 중요한 재무적 이슈라고 응답한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하였다.

한편 전체 근로자들 가운데 은퇴에 대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지난 2009년 75%에서 2013년 66%로 하락하였다. 특히 연간 가계소득이 35,000달러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9년 49%에서 2013년 24%로 절반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美 근로자의 은퇴 생활자금 계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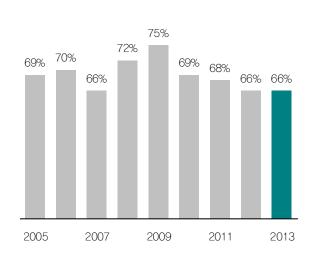
연간 가계 소득 75,000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률이 94%로 2007년(93%)대비 오히려 증가하는 등 소득 계층별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저축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미국 근로자들이 보유한 부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5%가 현재 보유한 부 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당장 다음달에 예상치 못하게 2,000달러가 필요할 경우 이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 하는 등 현재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은퇴 시장의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노후 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 중인 국내 시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은퇴 준비는 다른 어떤 계획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은퇴설계야 말로 은퇴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The 2013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EBR, 2013.3)

#### 美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률



국내외 단신



# 2016년부터 60살 정년연장 시행



"직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 및 기업은 2016년1월1일부터, 300명 미만 지방자치 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1월1일부터 정년 연장법 적용"

지난 4월 30일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는 모든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고 대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임금체계조정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를 지나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24.3%)이 노인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돌아서고,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중 핵심 생산층(25~49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쳐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년 60세가 권고조항으로 강제력이 없이 적용되었던 현행법을 개정,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법안 시행 후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협의에 맡겨진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선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첫 대상이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국가·지자체및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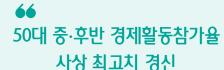
한편, 정년연장법의 시행은 결정되었지만 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재계에 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 임금대비 생산성 저하, 신규 청 년 인력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계 개편 내용이 법률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시행에 있어 노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일반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법 통과 직후인 지난 5월 3일 시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가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 의견은 18%에 그쳤으며, 5%는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응답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70%를 웃돌아, 청년실업에 고민하고 있는 2~30대와 중장년층 간 세대 갈등 발생가능성이 우려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법의 시행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작용을 줄이는 일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부담은 경력자들의 오랜 노하우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높은 임금만 고수하기 보다는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 도입을보다 유연한 태도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3.4)

**국내외 단신** 행복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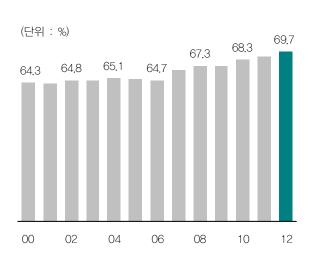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의 50대 편입으로 2012년 기준 만 55~5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70%에 육박"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두 달 연속 취업자수 증가 폭이 저조하며 고용 시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5~59세의 고용률은 2000년 62.2%에서 2012년 68.1%를 찍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68%선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 란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취업자와 일을 하지 는 않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5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7%로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

55~59세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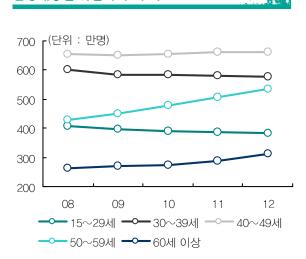
하였다. 2000년 64.3%에서 꾸준히 상승한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2009년에 잠시 정체 됐다가 2010년 68.3%, 2011년 68.9%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50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2013년 기준 1955년생은 58세, 1963년 생은 50대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50대에 들어서면서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세대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55~59세의 경우 대부분이은퇴후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마련인데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 수준은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 인력의 질적인 고용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탄력적 시행이 전제 된 정년 연장의 적극적인 시행이바람직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3년 3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4)

#### 연령계츙별 취업자 수 추이



# 연금보험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완성

##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

연금보험은 젊을 때 적립한 연금 적립금액을 바탕으로 은퇴 시점부터 연금 형태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은퇴상품이다. 지난 2005년 국내에도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 입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층 연금 체계를 미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 다. 연금보험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에 이어 3 층인 개인연금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으로 특히 40%대 초반에 불과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낮은 소득 대 체율을 보완하여 충분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 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연금보험은 생존기간 내내 일정금액을 지 급받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으로 서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 발적인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10년 이상 계약기간 을 유지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 투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보유

연금보험은 연금지급 기간, 세제혜택 여부, 피보험자수, 투자유형 등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먼저 연금 지급기간에 따라서는 확정된 연령 혹은 시기 동안 지급되는 정기연금과 생존기간 내내 지급되는 종신연금으로 구분된다. 둘째, 소득공제 또는 자본이득에 세금이 감면 또는 면세되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제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한명인 단생연금과 피보험자가여러 명인 연생연금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투자유형에 따라서 납입보험료를 금리에 연동하는 일반형연금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연금수령액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연금이 존재한다. 실적배당형연금은 다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연금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하는

#### 투자유형에 따른 연금보험 비교



		일반형	실적배당형					
		글린잉	변액형	자 <b>산연</b> 계형				
	공통점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del>-</del> 1	최저보증이율	있음	실적배당	최저보증 0%				
차 이 저	예금자보호	5천만원 한도 보호	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	5천만원 한도 보호				
점	중도인출	불가	가능	선택 가능				
	장점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수령 가능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헷지를 통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전	변액연금보다는 안정적인 연금수령 가능				
단점		물가상승에 따른 현금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없음	투자성과가 나쁠 경우 연금수령액 감소					

Hana Institute of Finance 43

**상품브리프** 행복가이드

자산연계형 연금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특히 투자유형에 따라 연금보험은 상이한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먼저 일반형의 경우 금리형 상품으로 적은 수익률이지만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만 수익률에 대한 보증이 없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금보험은 중도 해약 시 손해가 발생하는 보험상품인만큼 가입자는 본 인의 상황과 목적 그리고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 품을 비교해보고 적절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 무배당 넘버원 적립연금보험





## 하나은행, 『행복연금통장』 새롭게 출시

하나은행은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노령연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고금리 및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연금통장」을 8일부터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수시 입출식 저축예금으로 연금 이체 시연 1.7%의 금리와 추가 조건 만족 시 0.3%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하나대투증권, 『건강한 금융, 행복한 가정』 고객 이벤트 실시

하나대투증권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연금저축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한 금융, 행복한 가정」 고객 이벤트를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금저 축계좌 가입 고객 중 이벤트 대상 고객을 선정하여 20 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제공하고, 선착순 200명에 게는 통장에 가족사진 인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외환은행, 신상품 『KEB행복나눔대출』 출시

외환은행은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대출 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은행 자체 서민금융 대출 상 품인 『KEB행복나눔대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고 3백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소액, 단기 신용 대출 상품으로 대출금리는 최저 연 6.91%~최고 13% 수준으로 성실상환 시 금리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하나생명, 건강한 종신보험 출시 및 행복금융프라자 출범

하나생명은 4월 15일 다이렉트 전용 종신보험보다 더 저렴한 「무배당 건강한 종신보험(1.1)」을 출시했다. 위 상품은 업계 최초로 정규직 직원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으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해 보험료를 낮추고 해지 환급금을 높였으며, 행복금융프라자 신설을 통해 평생보험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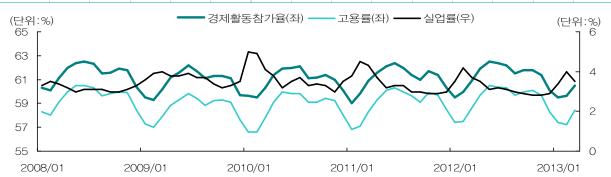


**연금 통계** 행복가이드

**경제 활동** 통계청

#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	ll활동 참기	기율			고용률						
C-L-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3	59.9	8.4	60.9	74.5	78.9	72.4	35.0	57.7	7.6	55.8	72.0	77.2	70.8	33.8
2013.2	59.6	8.8	60.7	74.5	78.6	72.1	34.2	57.3	7.9	55.3	71.9	76.9	70.2	32.6
2013.3	60.5	6.6	61.0	74.6	79.4	73.5	37.5	58.4	6.0	55.8	72.2	77.5	71.9	36.6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1.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신포	중기업시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가입자	가입자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1	20,200,594	1,200,352	11,415,130	8,485,419	1,941,567	6,543,825	208,754	91,291
2013.2	20,183,358	1,208,903	11,476,447	8,412,698	1,924,888	6,487,810	201,531	92,682

#### 2. 2013년 2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 주택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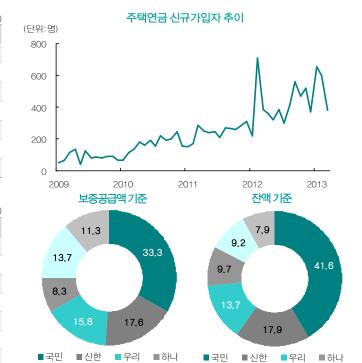
##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월보

####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45
2010.12	2,016	3,036,120
2011.12	2,936	4,099,970
2012.12	5,013	6,900,600
2013.1~3	1,633	2,134,900
2013.2	599	812,591
2013.3	381	422,567

# 2. 2013년 3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단취 : 백만권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	국민은행	1,408	76,483
1	신한은행	744	32,928
_	우리은행	669	25,219
ā	하나은행	350	17,791
	농협	577	16,980
	기타	477	14,487
	합계	4,225	183,888



■농협

■기타

# 퇴직연금

## 노동부,금융감독원

#### 1, 2013년 2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1. 2010년 2월 11년 11년 년보기 1 天 11년 1 년 0, 11년 1 (단위: 명, 건												
구분		근로	<b>르</b> 자		사업자							
TE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064,999	4,848,366	1,189,060	85,619	1,165,114	77,657	88,327	45,499				
생명보험	2,905,350	2,642,209	163,845	3,632	177,518	50,118	14,755	1,767				
손해보험	1,000,489	942,865	54,293	251	21,502	1,940	16,109	223				
증권	2,779,131	2,348,715	379,374	1,142	85,955	2,905	6,090	119				
근로공단	65,561	-	64,055	489	19,638	_	19,410	228				

■농협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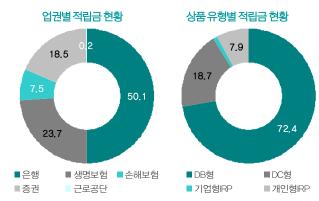
####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b>2. 제도규정을 포납자답장 한경</b>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	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E	난독도입	기업형	₹ 도입			
TE	E/1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09	185,689	63,150	34.0	3,881	2.1	89,571	48.2	29.087	15.7			
2012.10	189,644	64,139	33.8	4,142	2.2	92,215	48.6	29,148	15.4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1	207,319	69,012	33.3	4,641	2.2	103,716	50.0	29,950	14.4			

**연금 통계** 행복가이드

# 3. 2013년 2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675,911	213,172	82,490	6,369	36,767
은행	338,798	135,590	17,300	156	6,822
생명보험	159,868	44,876	4,114	9	1,827
손해보험	50,825	96,001	21,534	18	7,752
증권	125,306	0	1,096	12	6
근로공단	1,114	489,639	126,534	6,564	53,174



## 4. 2013년 2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DB	형	DB	형	기업형	g IRP	개인형	ig IRP	·	계	
		<b>十</b> 元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적금	245,976	50.2	75.623	59.8	5,731	87.3	33,815	63.6	361,146	53.4	
		금리확정형보험	170,059	34.7	12,539	9.9	107	0.0	6,934	13.0	189,639	28.1	
		금리연동형보험	24,003	4.9	4,539	3.6	52	1.6	1,147	2.2	29,741	4.4	
워		국채	526	0.1	1,109	0.9	0	0.8	1,618	3.0	3,253	0.5	
힉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상		원리금보장ELS	34,423	7.0	1,943	1.5	0	0.0	2,437	4.6	38,803	5.7	
		RP	7,609	1.6	1,468	1.2	1	0.0	802	1.5	9,880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23	0.1	0	0.0	32	0.1	155	0.0	
	기타		607	0.1	406	0.3	0	0.0	148	0.3	1,161	0.2	
	원리보장금 소계		483,204	98.7	97,751	77.3	5,892	89.8	46,932	88.3	633,778	93.8	
	실적배당형 보험		169	0.0	1,526	1.2	9	0.1	354	0.7	2,057	0.3	
		주식형	835	0.2	931	0.7	0	0.0	35	0.1	1,801	0.3	
	T.	혼합형	1,057	0.2	12,191	9.6	185	2.8	1,288	2.4	14,721	2.2	
실	합	채권형	2,694	0.6	12,122	9.6	413	6.3	1,890	3.6	17,118	2.5	
실적배당	집합투자	재간접	1	0.0	170	0.1	0	0.0	24	0.0	196	0.0	
당	증 권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13	0.1	521	0.4	33	0.5	44	0.1	911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5,068	1.0	27,462	21.7	640	9.7	3,634	6.8	36,803	5.4	
		직접투자	254	0.1	98	0.1	0	0.0	245	0.5	597	0.1	
	실	적배당 소계	5,322	1.1	27,559	21.8	640	9.7	3,879	7.3	37,400	5.5	
	다	· 기성 자금	1,114	0.2	1,224	1.0	33	0.5	2,362	4.4	4,733	0.7	
		총계	489,639	100.0	126,534	100.0	6,564	100.0	53,174	100.0	675,911	100.0	

# 5. 2013년 2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은	행	생명보험		손해	보험	증	권	근로복지공단	
<del>_</del>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20,126	94.5	153,780	96.2	49,937	98.3	108,838	86.9	1,097	98.5
실적배당형	15,914	4.7	5,813	3.6	799	1.6	14,868	11.9	7	0.6
기타	2,758	0.8	275	0.2	89	0.2	1,600	1.3	10	0.9
합계	338,798	100.0	159,868	100.0	50,825	100.0	125,306	100.0	1,114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